

청암사에서는 아이패드가 팔만대장경입니다

불교계 최초 '스마트캠퍼스' 구축한 청암사 승가대학·율원

경북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학인스님 40여 명이 품안에 경전대신 아이패드를 안고 안행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스님들은 대웅전 왼편에 자리한 육화로에 자리를 잡았다. 학인 스님들은 아이패드로 '청암사스마트캠퍼스'에 접속했다. 연세가 많은 학인스님들은 엄지 검지를 이용해 화면에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도 한다.

국내 유수의 대학도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자수업(e-learning)을 김진산골에 위치한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활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많은 대학들이 앱(APP)을 출시했지만 대부분 도서관대출, 수강신청과 같은 학사행정 중심으로 사용될 뿐 전자수업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암사는 '청암사승가대학스마트캠퍼스' 앱을 8월 출시해 2011년 2학기부터 아이패드2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던 산중 승가 전 세계와 소통하는 활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육화로는 교육장소로 주로 쓰이는 곳으로 200여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사했다. 전화도 잘 안 터질 것만 같은 김진의 깊은 산중에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청암사 승가대학·율원이었다.

강의를 하던 학장 지형 스님은 "여러분의 강의 안에 1, 2학년의 율원의 과제물이 따로 공지 돼있는 것 보이시죠? 각자 열어보시고 과제물을 제출하세요. 제출한 과제물은 다 같이 열어 볼 수 있으니 과제물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 하도록 하세요"하며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직접 촬영·편집한다.

강의를 마쳤다.

청암사 승가대에 재학중인 규은 스님은 "출가 전부터 컴퓨터를 다루 왔다. 도반들이 많아 아이패드가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생각지 않게 강원에 들어와서 아이패드2로 수업을 받게 됐다. 디지털 기인 아이패드를 통한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포교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청암사스마트캠퍼스' 앱에는 지금껏 진행됐던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수록돼있으며 강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공지사항전달과 과제 제출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청암사는 '지엔넷'과 기술 협력해 앱을 개발했다. 또, 올 3월부터는 스마트캠퍼스에 대한 이해와 아이패드 활용방법에 대해

국내 유수대학도 하지 못한

스마트캠퍼스를 사찰서 구축

강원 교재·포교 수단으로 활용

전북대 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이백규 겸임교수를 초청해 강의했다.

청암사스마트캠퍼스 앱에 들어가는 모든 콘텐츠는 청암사 학인 스님들이 3년 전부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레이션을 해서 편집한 것들이다. 청암사는 영상팀을 만들어 영상 촬영이 가능한 6mm 카메라를 3대 구입하는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자료를 모아왔다.

율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길상 스님은 자신의 작품을 좀 보라며 아이패드 커버를 열어젖힌다. '청암사의 여름'이라고 이름 붙인 사진들이 멋진 음악과 함께 슬라이딩 된다. 아이패드로 찍은 사진을 '아이무비' 앱을 이용해 편집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반 재가자가 보여줬어도 놀랄만한 영상인데 율원에서 공부 하는 학인스님이 보여주니 더욱 그랬다.

"아니 스님,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라는 물음에 길상 스님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니 더 보기 좋죠? 너무 길면 안 좋아요 48초가 딱이죠. 우린 지난여름에 다 배웠어요. 어렵지 않아요. 저뿐 아니라 모든 학인 스님들이 다 할 줄 알아요"라며 활짝 웃어 보였다.

청암사는 경상북도 김천시에 산속에 위치한 제8교구 직지사 말사로 신라 현안왕 3년 도선 국사가 창건한 건립한 천년고찰



청암사 육화로에서 승가대학·율원 학인스님들이 각자 아이패드로 강의를 듣고 있다.

이다. 네 번의 큰 화재로 전소돼 여러 번 중창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말에 최승실당의 시주로 중창했지만 6년 만에 화재로 다시 전소 됐다. 1987년 3월 비구니 지형과 상덕 스님이 최초로 청암사비구니승가대학을 설립하고 육화로를 비롯해 지금의 면모를 갖췄다.

학장 지형 스님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학인 스님들께 더 좋은 강의를 들게 할 순 없을 까하는 고민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상하는 계기가 됐다. 좋은 스님이 되는 조건은 첫째로, 수행을 잘해야 되고 다음으로 포교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를 활용하면 강원 교육 뿐 아니라 국내외 소식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 스님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승가생활에 집중해야 할 학인스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형 스님은 "청암사 승가대학은 미래에 불교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4년 동안 사회와 동떨어져서 침만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포교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결단에서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 어플 첫화면.

한편, 9월 4일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참살이 앱 오픈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영상메세지가 대형스크린을 통해 전달됐다. 자승 스님은 "승가에 획기적인 일이며 교육적 큰 원력이다. 미래의 선지사인 비구니 스님들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자강의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청암사스마트캠퍼스에서 힌트를 얻어 중앙 승가대도 순차적으로 원격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현대인에게 불교 소개하는 '참살이' 앱

"라면 스프는 반만 넣으세요"
"이제, 된장을 풀고 뚜껑을 연 채로 콩나물을 넣으세요"

청암사 자양전에서는 '참살이' 앱 시연회가 9월 4일 열렸다. 참살이 어플은 청암사가 만든 또 다른 앱로 한 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참살이 앱 안에는 '걷기명상', '유미정사 식단', '유수'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앱은 8월부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시연회에는 유미정사의 사찰음식 강좌 동영상도 상영됐다. 학인스님들이 인덕선 렌지를 이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었다. 나레이션과 편집 역시 직접 했다.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쉽다! 나도 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실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콩나물 된장 라면'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이고 콩나물을 더해 야채 섭취를 늘



참살이 어플 첫화면.

리면서도 된장을 첨가해 심격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유미정사는 사찰음식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알려 주기 위해 연구하고있다.

천진영 기자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500질 한정판



01. 화엄경 김지건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모범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해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범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모주 역/10,000원